색·소·폰 인생은 즐거워~

問
1846년 처음 만들어졌고 최근 중·장년 남성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목관악기는?
答
'색소폰'(saxophone)

'함평 나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5일 저녁 함평 문화의 집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수, 정철희, 이상범, 모상남, 나영수 단장, 김판수, 노경식, 이순재, 노암씨.

함평 나비색소폰 동호회 15인의 회원들 노인회관 찾아 음악 봉사

지난 5일 저녁 8시 함평군 함평읍 문화의 집. 입구에 들어서자 묵직하면서도 이색적인 음색의 악기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함평 나비 색소폰 동호회'회원 9명이 칠판의 악보를 시선으로 쫓으며 진지한 자세로 연주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날 연습곡은 가요 '영영'과 '그 겨울의 그 찻집'.

회원들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같이 모여 2시간씩 색소폰을 연습한다. 회원들은 49세부터 70세까지 연령층 15명으로 직업 역시 공무원, 경찰, 자영업, 치과의사 등 다양하다.

"사람마다, 마음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악기입니다. 내가 울적할 때면 악기도 울적한 소리를 내며 심금을 울립니다."(이상범·58·손불수산 대표)

동호회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07년 8월 말. 함평지역에서 색소폰 동호회가 결성된데에는 나영수 단장이 중심점에 있다.

나 단장은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고가 되려고' 생각하며 상경해 10여 년간 직업으로 '나발'을 불었다. 그러나 장남인 관계로, 생활 때문에 귀향해 나산중학교에 브라스밴드(brass band)를 만드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 79년 4월 '음악과 영원히' 결별을 해야 했다. 그 이후 28년 몇 개월동안 '음악'을 억지로 잊어버리고 함평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2007년 정년하고 낙향해 전원생활을 하던 초등학교 동창이 '나발을 샀는데 봐달라'해서 기초만 알려주고 손을 떼려 했던 것이 모임의 시발점이 됐다.

"남자라면 누구나 평소에 악기 하나쯤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4개월 전 우연히 '좋은 선생님'이 지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호회 문을 두드렸습니다"(정기수·49·사업)

동호인들은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좋아서' 한 자리에 모였다. 색소폰을 배우게 되며 자연 술자리가 줄고 연습자리에 나가게 돼 부인들도 좋아한다는 부연설명이다. 연습실 벽에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쉬면 청중이 안다'라는 표어를 붙여두고 서로를 독려한다.

처음 동호회에 들어오게 되면 나 단장에게서 톤(tone)과 운지(運指)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민요와 동요를 거쳐 차츰 수준을 높여 자신이 좋아하는 가요나 재즈, 팝송 등을 연주하게 된다. 초보자들의 경우 어릴 적 피아노 등을 배워 음악기초가 된 이는 진도가 빠르지만, '음치'나 '박치'는 남들보다 배 이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개인차가 심하단다.

나 단장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천안 삼거리 등 민요 레슨을 하다 보면 신통하게도 1주일이면 잘 불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민요 5 음계가 뱃속에서 배웠다 할 정도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맘으로 삽니다"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연주실력이 궤도에 오른 동호인들은 함평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주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대 울렁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부부동반 송년회를 하며 '목포의 눈물', 'Forever with you', '체르 핑크 맘보' 등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부인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동호인들은 올해 연주수준을 끌어올려 본격적으로 나비축제 공연을 비롯해 주 1회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 노인회관을 찾아 음악 자원봉사도 벌일 예정이다. 혼자서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러한 동호인들에게 제대로 된 연습실과 음향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함평지역은 일본서 음악(색소폰) 활동을 한 정규배(작고) 씨를 비롯해 유명 색소폰 연주가 이정식(48)씨를 배출하는 등 음악적 전통이 이어졌으나 현재는 나산중과 함평농고(현 함평골프고) 브라스 밴드(20인조)가 해체돼 맥이 단절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풍토를 안타까워하는 동호인들은 '오아시스 같은' 문화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연장자인 김판수(70)씨는 "오래전에는 음악 하는 사람들을 '딴따라'라고 부르고, 음악도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늙어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 어려서 들은 음악에 대한 향수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색소폰을 불며 인생이 즐겁고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라며 활짝 웃었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